

95. 9월

<중 국>

신화사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제8차 5개년계획('91년~'95년)의 중점 프로젝트인 전국최장 육상 광케이블인 서안-란주-울무치의 통신광케이블이 정식으로 준공되어 검사에 합격했다고 한다. 총연장 3,000km 정도인 이번의 국가 一級 광케이블 간선은 '93년 12월에 착공되었는데 총투자액 7억9천만 원이었다. 우전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쪽은 서안시가 기점이며, 서쪽은 울무치에 이르는 이번의 광케이블이 중간의 옥계, 평량, 란주, 무위, 주천, 안서, 하미, 툽판 등 서북의 요충지역을 경유하여 협성성, 감숙성영하회족자치구, 위구르자치구 등 39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

<국 내>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105개 전략품목을 선정, 국산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전략품목은 개발자원을 신청한 총 531개 품목을 엄선한 것으로 기계분야 67개, 전기·전자 27개, 소재 11개 품목 등이다.

<러시아>

러시아 연방 최대 광물자원 보유 공화국중 하나인 사하공화국은 야쿠트 다이아몬드 생산지역인 Vilyul 강에 제3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원중 금년중에 총 6,200만 弗(2,800억 루블)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원은 지난 7월 중순 체르노미르디 총리가 사하공화국을 방문할 때 사하공화국의 관리들이 '95년도 연방세 납부부분중 상당부분을 유예해줄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방총리에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었다.

이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360 MWt에 달하기 때문에 건설이 완공될 경우, 일부지역에서의 부족한 전력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 내>

최근 금강중앙연구소 신소재연구팀에서는 무기재료와 금속의 접합기술인 Alumina Metallizing 기술을 기반으로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튜브의 국산화에 성공,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개시하였다. 세라믹 튜브는 진공차단기에 과전압이 흐를시 차단되는 부분을 진공상태로서 기밀성과 절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진공차단기 제조업체의 품질평가 결과 수입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라오스>

라오스가 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혁정책 도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세를 구가해왔지만 최근들어 높은 물가상승률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외화부족으로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라오스는 특히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해 국가경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여건이 이처럼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라오스정부는 유

망산업인 수력발전사업에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 내>

중국·동남아·터키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후발개도국을 대상으로 原電기술 수출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 및 국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자립단체에 들어선 국내 원전기술의 해외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국내업체들의 움직임은 수출대상국들이 원전기술 자립단체에 들어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을 위해 국내 업체들과의 공동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원전기술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베트남이 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기업화조사(FS)를 개시했다. 베트남은 2007년의 전국 규모의 송전망 완성을 위해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번의 수력발전소 건설계획도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발전소 건설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계획으로서 하노이시의 서쪽 약 200km에 위치한 송라 지방에 현재 베트남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호화빈발전소'의 약 2배 정도의 발전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FS를 행하며, FS의 실행에 있어서는 세계은행이 약 700만 달러의 자금원조를 실시한다. 하노이시는 同 발전소의 건설에 있어서 세계은행을 비롯하

여 아시아 개발은행, 일본기업에의 한 자금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 내〉

공업진흥청은 품질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품질경영 최우수기업 100개사를 엄선, '95년도 '품질경영 100選'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품질방침을 설정하고 전사원이 합심해 품질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높은 성장과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품질과 기술수준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중 국〉

중국은 상품의 품질보증, 신용도의 제고, 소비자의 보호, 국제무역 촉진 및 국가간의 품질인증 협력을 위하여 장성마크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중국내 수입,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명 시된 제품은 중국의 제품검사기구(상품검험국 또는 기술감독국의 위임을 받은 중국전공상품인증위원회)에서 발급한 제품검사 표시(CCIB시 또는 장성표시)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국 내〉

내년부터 현행 산업지원관련 9개 기금·자금이 산업기술개발, 산업기반조성, 중소기업지원 등 기능별로 3개 기금 및 자금으로 개편된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산업지원관련 기금·자금은 그 종류가 다양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탄력적이

고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9개 기금·자금을 3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운용도 WTO체제의 출범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기술·물류·환경·입지·표준화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세 계〉

일본의 스미토모(住友)상사가 홍콩의 호프웰그룹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총 18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發電사업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스미토모는 호프웰그룹 산하의 發電사업자인 PT세파인도네시아에게 용자를 포함해 모두 4억달러를 투자,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미토모은행 홍콩상해은행 美시티은행 등 7개 민간은행에 의한 국제협력용자단이 결성되었고, 일본과 캐나다 양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에도 용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스미토모는 경제성장으로 전력부족이 심각한 아시아에서 앞으로 공동으로 발전사업을 확대할 전략이다.

〈국 내〉

중소기업들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의 내년도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내년도 공업발전기금 용자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5.2% 늘어난 3,275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통상부가 발표한 '96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용자지원규모 3,275억원 중 기술개발사업에 2,5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통상부가 고시한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등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제품개발사업에 올해보다 66.7% 증가한 2천억원을 배정했다.

〈인 도〉

인도정부는 제8차 경제개발 계획의 잔여기간인 '95/96, '96/97, 회계년도 2년동안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전력, 철도, 석유화학, 수송 등의 인프라개발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국내산업경쟁력 향상에 의한 수출증가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를 계획이다. 인도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2년간 인프라개발을 위해 추가 지출할 공공재원규모 261억9,300만弗을 할당했다.

〈국 내〉

정부의 중전기, 계측기기, 조명기기 등 전기기기류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시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는 작년부턴 올 상반기까지 한 전기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업계 자체자금 등을 사용해 개발된 51개 전기기기 기술개발과제중 12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개발성과 발표회를 갖는 한편 통상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했다.

〈중 국〉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가

는데 있어서 SOC 부족문제가 큰 장애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 확충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95~2000년간 중국의 SOC 투자수요는 연간 410~440억 불로 6년간 모두 2,300~2,6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전력부문이 28%인 652억~728억불로 연간 108억~121억불에 달한다.

중국의 전력사업은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SOC 사업중에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사업분야에의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5. 10월

<세 계>

日立製作所·東芝·三菱重工業·三菱電機 등 일본계 기업 4社가 중국 최대 프로젝트인 三峽댐 건설과 관련, 발전설비를 수주하기 위해 기업연합을 결성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北京發로 보도했다. 이 기업연합은 내년여름쯤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수력발전설비 국제입찰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三峽댐 사업비는 약 3조엔으로 이 가운데 설비관련 사업지는 5천억엔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팽팽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들 4社는 구미업체들에 대항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기업연합결성을 결정했다.

<국 내>

정부는 지난 7월 확정된 자본재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된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본재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收入금액의 5%까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의 적용기간을 7년으로 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자본재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174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중 국>

중국정부는 長江(일명 揚子江)의 최대지류중 하나인 荊江에 3개의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外資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이 수력발전소건설 프로젝트에는 약 3백억~3백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중 1백50억원을 해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이 3개 수력발전소의 총발전용량은 3백만kW이며 연간 발전량은 1백억kW/H에 달할 전망이다.

<세 계>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의 세계 총생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4.1% 증가, 금년도의 증가율 3.8%(추정치)에 높아지지만 선진국의 경우 2.4%로 2.5%에 비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의 세계교역규모 증가율은 6.6%로 올해의 8.0%에 비해 둔화되고 내년 선진국의 수입 증가율이 5.5%로 올해의 7.1%에 비해

크게 낮아져 선진국의 수입수요 둔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 내>

올해 우리나라 전체수입을 주도해 온 자본재 수입증가세가 내년에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입비중이 큰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본재수입 추이 및 전망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약 3분의 2가 내년도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10% 이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내년도 자본재 수입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이처럼 자본재 수입둔화가 예상되는 것은 그동안 활발했던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주요 부품의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는데다 엔화약세로 수입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 본>

일본의 松下電器産業과 松下電池工業은 동구·러시아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유럽전략구축에 착수했다. 그 첫사업으로 벨기에의 필립스 松下電池工業(PMBC)에서 취급해 온 망간건전지의 생산을 '97년말까지 폴란드에 건설중인 신공장으로 전면 이전한다. 생산 코스트를 줄이는 한편 동구·러시아에서 앞으로 전지수요의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신시장개척을 겨냥하고 있다.

<국 내>

통상산업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공업기반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하

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수요부족 및 가격경쟁력 약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 '87~'93년까지 통산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공업기반기술 가운데 사업화에 실패한 143개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패요인중 개발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시장 수요부족과 가격경쟁력 약화가 전체의 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발주체인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및 사업화를 위한 투자비 과다는 34.3%, 개발기술 자체의 미흡과 양산화를 위한 주변기술 및 생산기술 부족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일 본〉

일본의 도쿄전력은 송전용 철탑을 해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최근 발주했다. 15만볼트의 富士川線(富士市-清水市間)용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됐다.

경쟁입찰에는 일본국내의 철탑 메이커 2개사를 포함한 3개사가 참여했다. 송전용 철탑은 지형에 맞춘 강도설계와 도장의 내구성 등 높은 기술이 필요해 일본국내 메이커를 우선해 왔으나 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일본과 같이 향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 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총 2조 1400억원을 투입, 43개 기술분야, 550개 기술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이중 1조1천억원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술개발계획이 성공리에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천년에 세계 초일류 제품 및 기술 10개, 시장잠재력 전략제품 및 기술 40개, 유망제품 및 기술 500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 본〉

일본의 야자키(矢崎)총업은 최근 베트남에 자동차용 전선(와이어하네스) 제조회사 '야자키 EDS 베트남'을 설립했다.

내년도부터 생산을 개시, 동남아 각국에 진출해 있는 구미자동차 메이커용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장차는 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시장에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새 회사는 야자키총업이 자본금 600만달러를 전액 출자하여 호치민시 교외에 설립했다. 동사가 베트남 진출을 결정한 것은 생산코스트가 저렴하고 베트남의 자동차시장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5. 11월

〈세 계〉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는 프랑스 최대의 종합전기메이커인 알카텔 알스톰社와 포괄적인 제휴관계를 체결하기로 기본 합의했다. 기따오카 사장과 알카텔의 츠르크 회장이 얼마전 수뇌회담에서 방침을 결정했다. 반도체, 통신기기, FA의 3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염두해 두고 있다. 연내에 구체적인 제휴분야를 선정하여 내년초부터 공동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생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알카텔社는 중전·수송기와 통신의 2개 분야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산하에 1천개 이상의 자회사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우주·방위기기, 전기공사, 원자력기기, 전선, 가전을 포함한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 내〉

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사업이 내년부터 일정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도인력을 집중배치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최근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기술지도사업 추진계획 확정, 내년중 모두 1천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지도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던 방식에서 탈피, 지도업체에 30%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켜 우수 지도인력을 확보하고 업체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일 본〉

일본의 NKK는 아시아에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발전설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제휴관계에 있는 프랑스 알스톰의 보일러 터빈을 중심으로 독일 슈타인물리의 기술인 순환유동상 보일러와 디젤발전플랜트도 추가하여 자가발전플랜트를 주력으로 한 중형타입의 시장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국내에서의 판매력 기술력을 배경으로 앞으로는 특히 알스톰과 제휴관계를 강화, 우선 향후 3~4년을 목표로 실수요에 연결할 방침이다.

〈독 일〉

독일 지멘스사는 전력기술부분인 PWU는 발전용 고온 연료전지의 개발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수소와 산소를 배이스로 하는 세라믹 전해질 연료전지 SOFC를 사용하여 950°C의 온도에서 10.7kW의 출력을 내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의 세계기록은 지멘스의 에이랭겐 연구소가 기록한 1.7kW였다. 운전시간도 1,100시간으로 지금까지의 기록에 비해 4배로 연장되었다. 한편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킨 경우에서도 5.4kW의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일 본〉

일본의 큐슈전력은 내년 1월 상순에 아시아제국지역의 기업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자재조달의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한다. 저렴하고 높은 품질의 자재를 제조하는 메이커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재구입을 위한 해외기업 조사는 약 2년만이다. 자재부 외에 공무부, 화력부 등에 소속하고 있는 중견사원을 파견한다. 방문처는 대만, 한국, 타이, 말레이시아 등이다. 배선기기, 전선, 변압기 및 관련 자재메이커를 방문하여 '96년도 이후의 해외자재 조달에 활용한다.

〈국 내〉

정부는 오는 2001~2004년까지 400M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 2기,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기로 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업체가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는 BOO (Build, Own and Operating) 방식으로

추진하되 생산전력은 한전에 전력 판매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은 한전 수준 범위내에서 보장할 방침이다.

〈세 계〉

일본을 방문중인 북한의 金秀勇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경제신문 기사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에너지 관련기업인 스탠튼 그룹이 합작으로 북한의 경제특구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對북한 투자 움직임으로써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경제체제의 일환으로써 美 기업의 북한투자를 핵문제에 관한 북·미 합의에 관련된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실현여부는 유동적인 면도 있다. 김교수에 의하면 합작 발전소의 건설지는 북한 북동부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동 지역에서 美 기업의 투자계획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발전소의 규모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일 본〉

일본의 오키전선은 인도네시아의 바탐섬에 전선·케이블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96년 4월부터 조업을 개시한다. 동사는 싱가포르에 판매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의 생산거점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회사의 명칭은 '오키 일렉트릭 케이블 바탐'이다. 자본금은 600만달러이며, 오키전선이 90%, 판매 현지법인인 '오키 일렉트릭 케이블 아시아'가 10% 출자했다. 생산품목은

모듈러 코드, 자동차전화용 코드를 비롯하여 케이블류, 코넥터류 및 케이블 가공품 등이다. 연간매상 1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내〉

정부는 통상·공업·광업·에너지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CALS (Commerce At Light Speed) 체계를 도입코자 하는 기업을 시범사업자로 선정·육성 함으로써 CALS체계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ALS체계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12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대상업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독 일〉

독일 통신업체인 지멘스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광케이블 및 전자교환기 공장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베트남 뉴스가 보도했다.

베트남 뉴스는 지멘스가 베트남 측 파트너인 베트남 체신공사와 함께 호치민市 북부의 공장입지 물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두 공장 중 하나인 파이버 옵틱 & 액세서리사는 연간 10만km의 광케이블을 생산하고 또 다른 공장인 텔레커뮤니케이션즈 이큅먼트사는 연간 20만대의 전자교환기를 생산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 내〉

정부는 선진국의 10~20% 수준인 국내 기술기반 수준을 분야별로 선진국의 50~70%로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기술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와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 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관건이 되는 기술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案)'을 마련했다.

<세 계>

유럽최대의 중장기 메이커인 ABB는 우크라이나에서 송배전 관련장치의 생산을 개시한다. 우크라이나 최대의 개폐장치 메이커인 PZVA社와 합작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의 로브노에서 신회사를 설립하여 최신예의 고압개폐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 본>

일본의 실크技研은 중국의 제어용 모터 검사기관인 중국기계공업부 西安微電機研究所(MMRI)에 서보모터제어용 IC의 제조기술을 공여키로 했다. 소형 고기능의 ASIC(특정용도용 IC)에 취급을 간단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IC를 부착한 구동제어용으로 이 모터를 구동원으로 하는 수치제어(NC)장치와 로봇수요의 중국에서의 장래성을 감안해 제품공급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MMRI는 금년 9월부터 연간 수천개의 주문을 받아 우선 DC 서보모터의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크技研은 생산이 케도에 올라선 단계에서 이 모터의 역수입도 계획하고 있다.

<세 계>

ABB 전기엔지니어링그룹은 전

력 및 산업용 우라늄의 통제 및 감독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다.

합작사인 ABB 노노릿사 지분 중 51%는 ABB사가 미국자회사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를 통해 인수했고, 잔여분 49%는 구소련의 미사일 통제시스템 제조업체인 노노릿사가 인수했다.

이 합작사는 방위산업의 민수용 전환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ABB사는 현재 15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4개의 우라늄관련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세 계>

중국과 프랑스는 지난달말 Ling Ao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1개의 계약에 서명했다.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은 향후 몇년간 프랑스의 원자력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건립될 원자력발전소 Ling Ao는 이미 '83년과 '94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Daya Bay 1호기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유형으로 2개의 985MW급 여압수 방식의 원자로이다.

이 원자력발전소 건립은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2개의 원자로발전소는 각각 2002년과 2003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국 내>

품질경영인증의 주요규격인 ISO 9001, ISO 9002, ISO 9003의 3개 규격을 ISO 9001로 통합시키는 등 25개 ISO 9000시리즈 규격이 오는 2천년까지 4개 규격과 Technical Report로 재편된다.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南阿

共 더반에서 개최된 ISO(국제표준화기구) 산하 ISO/TC176(품질경영 및 품질보증)표준화위원회 회의결과, 이같이 ISO 9000시리즈 규격을 전면 재편성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2개 ISO 9000시리즈 규격은 앞으로 ISO 8402(개념과 용어 정의) ISO 9001(품질보증규격) ISO 9004(품질경영규격) ISO 10011(품질경영체제 심사를 위한 지침)등 4개 규격과 Technical Report(규격선택과 사용에 관한 지침 및 품질원칙과 경영활동에의 적용지침)로 재편된다.

<일 본>

溫州電業 등 일본의 대형 전선 도매점들이 전선 도매가격을 東京·大阪에서 2~5% 인상키로 하고 이를 2차도매점과 수요업체에 통보했다. 가격결정지표인 銅지금의 일본내 가격이 11월 들어 두차례나 올랐기 때문에 가격인상안은 이로써 3개월만에 다시 제시됐다. 그러나 銅지금의 국제가격이 최근 들어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일본내 주택착공건수 감소로 전선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수요업체들의 가격인상안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안이 완전히 침투될 경우 지표품종인 IV(옥내용염화비닐피복선, 1.6밀리, 600V)는 300미터당 90~210엔(2.3~5.7%) 이 상승, 중심가격이 東京과 大阪에서 각각 3840엔과 4020엔선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CV(가교플리에틸렌케이블, 8평방밀리, 600볼트)도 300미터당 1200~1500엔(2.7%~3.4%)이 오른 4만6350엔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